

#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계추아語의 일반적인 실태 및 土語주의

이 태 운  
(중남미 언어학, 방언학)

## 1. 머리말

아메리카 발견이후 16세기부터 사실상 중남미 부족언어들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그 수는 학자들 간에도 확실하지 않으나, (일부 언어들은 이미 소멸되었지만 아직 그 영향력이 중남미西語에 미치는 語種까지 포함하여) 대략 중남미에 300여 어종이 존재하고, 각 언어들의 파생어와 방언어까지 포함한다면 3,000여 종에 이른다.

그 중 北美 남부지방을 포함하여 中美의 부족언어들의 수를 Ligorred (1992)<sup>1)</sup>는 약 123가지 어종으로 집계한다. 북미 남부지방과 나우아틀 nahuatl지역에 29가지 어종, 멕시코 중부지방에 34가지 어종, 마야maya 지역에 34가지 어종과 그 밖의 지역에 25가지 어종으로 추산한다. 일반적으로 부족언어들은 크게 15가지 계열로 분류하는데 각 계열의 주요 언어는 Nahuatl어를 중심으로 하는 Hokano-coahuilteca어 계열, Maya어

1) Francesc Ligorred, *Lenguas indígenas de México y Centroamérica*, Madrid, 1992, p. 91.

계열, Chinanteca어 계열, Otopame어 계열, Zapoteca어 계열, mixteca어 계열, Mazateca어 (혹은 Popoloca어) 계열, Mangue어 계열, Huave어 계열, Totonaca어 계열, Mixe어와 Zoque어 계열, Cuitlateca어 계열, Purepecha어 계열, Yutonahua어 계열, 그리고Chibcha어 계열 등이다. 남미의 경우에는 남미와 중미를 연결하는 Chibcha어 계열을 중심으로 남미의 부족언어들은 약 170여 어종에 이르고 각 언어들의 파생어와 방언을 포함하면 대략 2,000어종으로 추산된다. 남미의 언어학적 계열을 14가지 언어로 나누는 학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9가지의 언어계열인 Araucano어 계열, Aimara어 계열, Quechua어 계열, Pano어 계열, Tupí-Guaraní어 계열, Arahuaaco어 계열, Caribe어 계열, Yunga-Puruahá어 계열로 구분한다. 그 중 켄추아어는 아직까지 제일 많은 언어 사용자가 현존한다.

일부 부족언어들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세력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거나 또는 쇠퇴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스페인어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중남미 西語의 異質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이 진행됨에 따라 아메리카 인디언言語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 한 예로 Rodolfo Lenz(1893)<sup>2)</sup>는 칠레의 西語는 음성학적으로 아라우카노araucano의 영향을 받았다는 인디언 土語주의 indigenismo의 학설을 시작으로 Pedro Henríquez Ureña(1921)<sup>3)</sup>는 인디언言語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남미 西語의 언어권을 1) 나우아틀 Nahuatl 언어권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지역) 2) 마야Maya 언어권 (멕시코 남부지역, 앤틀리스제도와 베네수엘라 해안지대) 3) 켄추아Quechua 언어권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북부지역,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4) 아라우카노Araucano 혹은 마푸체 Mapuche 언어권 (칠레 중부 및 남부지역) 5) 파라니Guarani 언어권 (파

2) Rodolfo Lenz, "Beiträge zur Kenntnis des Amerikanospanischen",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17, 1893, p. 249.

3) Pedro Henríquez Ureña, "Observac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Revista de de Filología Española*, VII, 1921, pp. 357-390.

라과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일부지역) 인 5가지 지역으로 분류했으며, Pedro Rona(1964)<sup>4)</sup>는 형태학적 고찰로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1) 멕시코, 앤티리스제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카리브 해안지대 2) 멕시코 남서지방부터 파나마 동부지역에 걸친 중미 전지역 3) 콜롬비아 태평양 해안지대와 베네수엘라 내륙지방 4) 콜롬비아의 안데스산맥지역 5) 에콰도르의 해안지대 6) 에콰도르 내륙지방 7) 페루의 해안지대 8) 페루의 내륙지방 9) 페루 남부지방 10) 칠레 북부지방, 아르헨티나 북서지방과 볼리비아 남부지방 11) 볼리비아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지역 12)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북동지방 13) 칠레 중부지방 14) 칠레 남부지방 15) 아르헨티나 중부와 남부지방, 우루과이 남부지방 16) 우루과이 북부지방. 이 밖에도 음성학적 고찰로 Zamora와 Guitart(1982)<sup>5)</sup>는 9개 지역으로 분류했으나, Melvyn C. Resnick(1975)<sup>6)</sup>는 256가지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중남미西語의 방언학적 분류에 있어서 크게 안달루시아Andalucía지방의 방언에 의한 영향andalucismo과 중남미 부족언어들에 의한 영향indigenismo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미 중남미西語에 관한 이론들로는 라틴어의 영향latinismo 혹은 16세기 古語體의 영향arcaísmo 등이 지배적이었으나 Max Wagner(1920)<sup>7)</sup>의 “Aerikanospanishch und Vulgärlatein”을 계기로 Menéndez Pidal(1962), Diego Catalán(1958) 등에 의해 안달루시즘andalucismo의 이론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항하여 Rodolfo Lenz(1893)의 논문 “Beiträge zur Kenntnis des

4) José Pedro Rona, “El problema de la división del español americano en zonas dialectales”,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1, Madrid, 1964, pp. 215-226.

5) Juan C. Zamora Jorge M. Guitart, *Dialectología hispanoamericana*, Salamanca, Almar, 1982.

6) Melvyn C. Resnick, *Phonological variants and dialect identification in Latin American Spanish*, La Haya, Muoton, 1975.

7) Max L. Wagner, “Amerikanospanisch und Vulgärlatein”,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40, 1920, pp. 286-312 y 385-404.

Amerikanospanischen”이 발표된 이후에도 Henríquez Ureña(1921), ángel Rosenblat(1964), Amado Alonso(1967) 등에 의해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부족언어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土語주의 indigenismo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중남미西語의 어휘학적 혹은 음성 음운학적 土語주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미비하고, 특히 형태적 혹은 통사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 이유로는 중남미 부족언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의 미비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잉카Inca시대의 언어인 켄추아語를 중심으로 형태적 통사적인 고찰로 분석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인디언言語들의 중요성을 함께 제시하고 싶기 때문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각 중남미 부족언어를 소개한 주요 문헌들을 연대순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Alonso molina(1541), *Arte de la lengua Mexicana y Castellana*.  
 Fray Andrés de Castro(1542), *Sermones en lenguas matlatzinca*.  
 André de Olmos(1547), *Grammaire de la langue Nahuatl ou Mexicaine*.  
 Maturino Gilberti(1558), *Gramática del tarasco*(1559), *Vocabulario de la lengua de Michoacán*.  
 Fray Domingo de Santo Tomás(1560), *Gramática o arte de la lengua general de los Indios de los Reynos del Perú*.  
 Francisco de Zepeda(1560), *Artes de los idiomas chiapanecos, zoque, tzendal y chinanteca*.  
 Cepeda(1560), *Arte de las lenguas Chiapa, zoque, celdales y cinacanteca*.  
 Juan Bautistas de Lagunas(1574), *Arte y Diccionario en lenguas Michoacana*.  
 Melchor de Vargas(1576), *Doctrina cristiana, muy útil y necesaria en castellanos mexicano y otomí*.  
 Fray Antonio de Ciudad Real(1577), *Calepino Maya de Motul*.  
 Fray Juan de Córdova(1578), *Vocabulario en lengua zapoteca*.

- Alonso de Bárzana(1590), *Apuntamiento para el arte y vocabulario de la lengua quichua.*
- Francisco de Alvarado(1593), *Vocabulario de lenguas mixtecas.*
- Antonio de los Reyes(1593), *Arte en lengua mixteca.*
- José de S. J. Anchieta(1595), *Arte de gramatica de lingua mais usada na costa de Brasil.*
- Fernando Murrillo de la Cerda(1602), *Libro del conocimientos de letras y caracteres del Pirú y México.*
- P. Ludovico Bertonio(1603), *Arte breve de la lengua aymara.*(1603) *Arte y grammatica muy copiosa de la lengua aymara.*(1612) *Vocabulario de la lengua aymara.*
- Diego de Torres Rubio(1603), *Arte de la lengua quichua y el Vocabulario quichua-español, español-quichua.*(1616), *Arte de la lengua aymara.*
- Fray Juan Martínez(1604), *Vocabulario de la lengua general del Perú llamada quichua y en la lengua española.*
- Luis de Valdivia(1606), *Arte y gramática general de la lengua que corre en todo el Reyno de Chile.*
- P. Diego González Holguín(1607), *Gramática y arte nueva de la lengua general de todo el Perú llamada lengua qqichua o lengua del Inca.*(1608)
- Vocabulario de la lengua general de todo el Perú llamado lengua qqichua o lengua del Inca.*
- Hieronimo Larios(1607), *Arte de la lengua mame,*(1644) *Arte y vocabulario en lengua mame.*
- Luis Jerónimo de Ore(1607), *Rituale, seu Manuele Peruanum.*
- Joan Font(1610?), *Arte y vocabulario de la lengua Tepehuana.*
- Gerónimo Figueroa(1610?), *Arte y Copiosos Vocabularios de las lenguas Tepehuana y Tarahumara y Catecismo y Confessionario en lengua Tepehuana.*
- Alonso de Huerta(1616), *Arte de la lengua quechua general de los Indios de este Reyno del Perú.* Fray Bernardo de Lugo(1619), *Gramática de la lengua general del Nuevo Reino, llamada Mosca.*
- Pe. Luiz Figueira(1621), *Arte da lingua brasilica.*
- P. Alonso de Aragona(1627), *Breve introducción para aprender la lengua guaraní.*
- Fray Diego de Olmos(1633), *Gramática de la lengua general del*

*cuzco.*

- Antonio Ruiz Montoya(1640), *Arte y Vocabulario de la lengua guarani.*
- Fray Diego de Basalenque(1642), *Arte vocabulario de la lengua matlatzinga vuelto a la castellana.*
- Antonie Biet(1644), *Dictionnaire de la langue galibi.*
- Fernando de Carrera(1644), *Arte de la lengua yunga.*
- Baltasar Loaysa(1647), *Arte de la lengua Hegue,*(1671)  
*Vocabulario de la lengua Névome.*
- P. Manuel de Moraes(1648), *Dictionariolum et uerborum linguae Brasiliensis maxime comunis.*
- Roxo Mexía y Ocón(1648), *Arte de la lengua general de los indios del Perv.* Juan de Aguilar(1690), *Arte de la lengua Quichua general de Indios del Perú.*
- P. Juan Lucero(1661), *Gramáticas y catecismos de las lenguas paranapura, cocama y otras del Ecuador.*
- Raymond Bretón(1665), *Dictionnaire caraibefrançois,*(1666)  
*dictionnaire françois caraibe,*(1667), *Grammaire caraibe.*
- John Davis(1666), *The history of the Caribby islands, with a Caribbean vocabulary Rendered into English.*
- Juan Pazarenco(1672), *Arte de la lengua zoque.*
- Luis González(1672), *Arte breve y vocabulario de la lengua tzoque.*
- Buenaventura de San Antonio(1675), *Vocabulario del idioma sacará.*(1675) *Arte de la lengua aroá.*
- Manuel de Yanguas(1683), *Principios y reglas de la lengua Cumanagota.*
- Matías Ruiz Blanco(1683), *Diccionario de la lengua de Cumaná y Arte de la misma del P. Yanguas.*
- Tomás de Guadalajara(1683) *Compendio del arte de la lengua de los tarahumares y guazápares.*
- Enrique Richter(1685), *Vocabulario y catecismo de la lengua campa, pira y cuniba.*
- Esteban Sancho Melgar(1691), *Arte de la lengua general del Ynga llamada Qquechua.*
- Juan Guerra(1692): *Arte de la lengua mexicana.* 2. 계추어語quechua의 실태

지금까지 우리가 중남미 지역의 주요 인디언言語들을 살펴보았듯이 현재에도 많은 언어사용자가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제일 많은 언어사용자를 가진 언어는 역시 께츄아語이다. 1987년도의 통계<sup>8)</sup>에 의하면 8,354,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은둔주거를 하는 부족들을 포함한 다면 약 1,000,000명에 이른다 한다. 다수의 언어사용자가 있는 만큼 중남미 언어현상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 께츄아語는 ‘Tahuantinsuyo’라는 잉카Inca시대의 영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이다. 잉카人들은 그들의 언어를 ‘께츄아Quechua’가 아닌 ‘인간의 말’이라는 뜻인 ‘루나시미 Runa Simi’로 불리어졌으나 16세기 스페인 선교사 Fray Domingo de Santo Tomás(1560)에 의해 ‘온화한 기후의 주민’이라는 의미로 ‘께츄아Quechua’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1607년 Diego González Holguín 신부의 문법서 ‘Gramática y Arte Nueva de la lengua general de todo el Perú, llamada lengua *Qquichua*’라는 표지제목으로 출판됨으로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 2.1. 께츄아語의 사용국가

현재까지도 께츄아語 사용국가는 페루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와 브라질 7개국이며 파라과이에도 아직 소수의 언어사용자가 있다고 한다.

### 2.1.1. 페루Perú

페루는 께츄아語 사용국가중 가장 많은 언어사용자를 가진 나라이다. 안데스Andes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방의 Tumbes, Piura, La Libertad와 남부지방인 Tacna를 제외한 모든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북쪽으로부터 살펴보면 Lambayeque, Cajamarca, San Martín, Ancash, Huánuco, Pasco, Junín, Ica, Arequipa, Madre de Dios, Moquegua와

8) Rodolfo Cerron-Palomino, *Lingüística quechua*, Centro de Estudios rurales andinos ‘Bartolomé de las Casas’, 1987, p. 76.

단일언어 사용지역인 Huancavelica, Ayacucho, Apurímac, Cuzco, puno 등이다. 이 밖에도 아마존강 유역에서도 소수의 언어사용자가 있다. 페루의 총 언어사용자 수는 1987년 통계에 의하면 4,402,203명으로 집계되었다.

#### 2.1.2. 에콰도르Ecuador

에콰도르에서는 '깨츄아Quechua'라 하지 않고 '끼츄아Quichua'라 불리운다. 사용지역은 안데스산맥 북부지역부터 Imbabura, Pichincha, Cotopaxi, Tungurahua, Bolívar, Chimborazo, Cañar, Azuay와 Loja, 이 밖에도 아마존강 유역인 Napo와 Pastaza 등 지역에서도 쓰이며 단일언어사용자들은 Guamote, Otavalo, Riobamba지역에서 발견된다. 총 언어사용자는 약 2,230,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 2.1.3. 볼리비아Bolivia

볼리비아 깨츄아語 사용지역은 크게 6개 지역인 Potosí, Cochabamba, Chuquisaca, Oruro, Santa Cruz와 La Paz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Potosí 경우에는 Daniel Campos 지역과 Quijarro 북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되고, Cochabamba에서는 북부지방 일부지역과 Ayopampa의 북동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용되고, Chaquisaca에서는 아이마라Aimara語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깨츄아語도 일부지역에서 접할 수 있다. 라파스La Paz 지역에서는 Franz Tamayo 지역과 Muñecas 그리고 Bautista Saavedra등을 꼽을 수 있다. 총 언어사용자는 1,594,000명으로 집계된다.

#### 2.1.4. 콜롬비아Colombia

이미 소개한 대로 콜롬비아 북부와 중부지역은 칩차Chibcha 언어권 지역으로 알려지고 남부지방 일부지역에서는 깨츄아語 사용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지역으로는 Nariño의 Aponte지역과 Caqueta강 유역과

Santa Rosa지역 Moscoa근처의 Santiago지역, Putumayo강 유역 Purutal과 Mandur강 유역에서 약 4,000여 명의 언어사용자가 있다.

### 2.1.5.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헨티나 역시 에콰도르의 경우처럼 ‘끼츄아’로 발음한다. 주요 사용 지역은 크게 2지역으로 나뉜다. 첫번째 지역으로는 Jujuy의 Salta 산악지대부터 Chañi지역에 이르고, 두번째 지역은 Santiago del Estero의 Capital, Banda, Figueroa, Matará, Sarmiento, Robles, Loreto, San Martín, Salavina, Avellana, 그리고 Copo, Alberdi, Pellegrini와 General Taboada등이고 Salta, Tucumán, Catamarca, La Rioja, Córdoba, San Juan과 Mendoza의 북부지역에서도 쓰인다. 총 언어사용자는 약 120,000명으로 추산된다.

### 2.1.6. 브라질Brasil

브라질의 Acre지방 Chandless강 유역에서 Alto Purús지역까지 약 700명 정도의 언어사용자가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스페인語 혹은 포르투갈語와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사용자이다. 그러나,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아직 은둔주거하는 단일언어사용자가 있으나 정확하게 집계한 자료는 없다.

### 2.1.7. 칠레Chile

칠레의 대부분 지역은 아라우카노Araucano 언어권 지역이나 북부지방 Antofagasta주의 Lauca 북서지역에 소수의 언어사용자가 있다고 하나 확실한 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 2.2. 께츄아Quechua語의 방언들

안데스산맥 콜롬비아 남부지역인 Pasto에서부터 Argentina 북부지역까지 넓게 퍼져 사용하는 만큼 그 방언들도 다양하다. 께츄아語 방언의

분류방법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다소 견해차이를 보인다. Torero(1975)<sup>9)</sup>는 역사적인 지역에 중점을 두고 크게 두 종류인 Huaihuash(QI)와 Huampuy(QII)로 분류하였고, Parker(1972)<sup>10)</sup>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Quechua A(QA)와 Quechua B(QB)로 구분하였으나, 본 논문은 성격상 Torero의 분류방법을 택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2.2.1. Huaihuash(QI)방언

이 방언은 형태적으로 Central방언과 Pacaraos방언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이 두 방언의 차이는 동사 뒤에 오는 제일인칭소유격 접사(接辭) -y의 사용유무에 있다. 다시 말해서, Central방언은 V-y 형식인데 비해 Pacaraos의 방언은 접사를 사용하지 않는 V- 형식이다. Central방언은 Huailay, AltoPativilca-AltoMarañón-AltoHuella와 Huancay방언으로 재구분된다.

#### 1) Huailay방언

이 방언은 페루의 Ancash 전지역, Marañón지역, Huamalies지역에서 사용되며 Huailas방언과 Conchucos방언으로 다시 갈라진다.

#### 2) Alto Pativilca, Alto Marañón, Alto Huella방언

Alto Pativilca방언은 Ancash의 Belognesi 지역과 Cajatambo의 북부 지역, Chancay 의 Ambar지역 등에서 사용되고, Alto Marañón방언은

9) Alfredo Torero, "Lingüística e historia de la sociedad andina", *Lingüística e indigenismo moderno de América*, XXXIX Congreso Internacional de Americanista, Vol. 5,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Lima, 1975, pp. 221-259.

10) Gary Parker, "Falacias y verdades acerca del quechua", *El reto del multilingüismo en el Perú*,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ed. por Alberto Escobar, Lima, 1972, p. 114.

Dos de Mayo지역, 그리고 Alto Huellaga방언은 Ambo, Huanúca와 Pachiteca 지방에서 사용된다.

### 3) Huancay방언

이 방언은 세부적으로 Yaru, Jauja-huanca와 Huangáscar-topará방언으로 다시 나누어지며, 지형적으로 Yaru방언의 경우에는 Catabambo 남동지역, Chancay의 산악지대, Pasco, Junín, Yauli와 Tarma 지역에서 쓰인다. Jauja-huanca방언은 옛 shaushas부족과 huancas부족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방언으로 Jauja, Concepción과 Huancayo 지역에서 사용되고, Huangáscar-topará방언은 Lima와 Ica 경계지역인 Topará강 유역의 산악지대와 Huangáscar, Azángaro, Yauyos 남쪽지대, Chíncha의 북서지역, Topará의 Chavín 지역 등에서 사용한다.

#### 2.2.2. Huampuy(QII)방언

Huampuy(QII)방언은 페루 일부지역을 제외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방언이다. 이 방언은 다시 지역에 따라 Yungay(QIIA)와 Chinchay(QIIB-C)로 나누어진다.

##### 1) Yungay(QIIA)방언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으로 구별되며 Lima의 해안지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점점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지방 Yungay방언은 Laraos, Lincha, Apurí, Chocos, Madeán방언으로 분류하고, 북부지방 Yungay방언은 Cañaris-Incahuasi와 Cajamarca방언들이 있다.

##### 2) Chinchay(QIIB-C)방언

실제로 사용되는 계층어語를 대표하는 방언이라 볼 수 있다. 북부지방의 Amazonas, San Martín, Loreto, Ecuador-Colombia방언과 남부지

방의 Ayacucho, Cuzco-Bolivia, Argentina방언으로 분류된다.

### 3.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께츄아語에 의한 土語주의 Quechuismo

중남미에서 제일 많은 언어사용자가 현존하는 께츄아語는 어휘학적 혹은 음성학적으로 중남미西語에 미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형태통사적인 이질현상에 관한 학설로는 아직까지 16세기 古風주의arcaismo, 안달루시즘andalucismo, 라틴어주의 등의 학설들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문은 께츄아語의 일반적인 형태적 구조를 비교 분석을 하여 서로 다른 언어들의 상호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土語주의의<sup>11)</sup> 필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 3.1. 께츄아語의 일반적인 특성

께츄아語를 한국어와 관계가 깊은 우랄알타이語派로 보는 학자들이 많으나 우리국어의 경우처럼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께츄아語의 구조적 특징은 교착어로서 우선 명사의 성género과 관사artículo가 없으며, 후치사(後置詞)가 조사(助詞)로 사용되는 점, 동사와 형용사 어미가 다양하고, 어순관계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FWO(Free Word Order) 형식이며, 통사구조가 대체로 SOV, GN, AN, DN인 후치적 언어이며, 단어조합형태는 VCCV 혹은 CVCCV형이 주로 쓰인다는 점들을 본다면 우리국어와 흡사한 점이 많다. 특이한 점은 3종류a, i, u 모음만 사용한다는 점이다.

11) LEE, Tae Yoon, *Morfosintaxis amerindias en el español americano*. Ediciones Clásicas-Ediciones de Orto,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97.

### 3.2. 명사의 성género 不一致에 의한 土語주의

께츄아語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디언言語들은 명사의 성género이 없기 때문에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혼동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남성·여성 성 구별이 없는 명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디언들의 男女有別 풍습에 있어서 계급언어의 영향을 받은 직시적 표현으로 사회언어학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여성명사의 경우>

presidenta, dependienta, sirvienta, negocianta, marchanta, comedianta, parienta, estudianta, atorranta, taquígrafa, ministra, diabla, individua, mayordoma, sujeta, tipa, tigra, aborígena, huéspedea, bachillera, animala, criminala, federala, liberala, intelectual, naturala, orientala.

#### <남성명사의 경우>

pianista, modista, campista, bromista, burlista, cuentista, maquinista, telegrafista.

#### <부사구의 경우>

de seguido, a la mejor.

#### <현재분사의 경우>

quemándala, peinándala, La mujer está muriéndose.

Es que la muy bandida está hacienda la tonta.

(Kany, 1970, p. 24; Lapeza, 1980, p. 585; Zamora, 1989, p. 432)

Granda(1992)<sup>12)</sup>는 파라과이의 파라니guarani語 경우에도 명사의 성이

없기 때문에 성의 불일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한다.

Camisa blanca, ríos profundas

같은 이유로 안데스지방 켄추아quechua語 혹은 아이마라aimara語의 이중언어사용자의 西語에서도 성의 불일치 현상을 일으킨다.

La *chacra* te dan lleno de árboles.

Bueno, mi *niñez* fue *rústico*. (話者が 남성일 경우)

(Caravedo, 1992)

### 3.3. 관사artículo에 의한 土語주의

이미 밝힌 바대로, 중남미 대부분의 인디언言語들은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관사의 생략 혹은 남용 등의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이밖에도, 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개념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으나, 그 중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현상중 하나는 '부정관사 + 소유격 인칭형용사 + N'의 형식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un amigo mío'라는 정상적인 표현대신 'un mi amigo'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지시형용사를 사용한 'este mi amigo'식의 표현과 정관사로 대치한 'de los sus ojos'등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중남미 西語에 있어서 마야maya언어권과 켄추아quechua언어권에서 주로 사용된다.

Nos quedaremos hasta la media noche en esta choza de *unos mis compadres*. (Perú: Kany, 1970, p. 64)

Tiene que darse *uno su gusto*. (México: Lipski, 1994, p. 305)

12) Germán de Granda, "El español de Paraguay. Distribución y estructuras", *Historia y presente del español de América*, C. Hernández ed., 1992, pp. 675-696.

No déjé por aquí *un mi libro*. (Guatemala: Martín, 1978, p. 108)

Andáte a lavar *esa tu cara*. (El Salvador: Kany, 1970, p. 64)

Ahora vamos con *el otro mi tío*. (Méjico: Kany, 1970, p. 64)

이런 형식의 표현에 관해 16세기 스페인古語體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으나, Kaufman (1975)는 과테말라Guatemala 西語의 경우에는 마야maya語에서 數詞로 사용되는 ‘jun’과 西語의 ‘un’의 음성학적 유사점을 들어 土語주의를 지지한다.

a. Ay *jun te7 in.na b'ay Temux*.

(Ay: ‘existencial’, *jun*: ‘un, una’, *te7*: ‘árbol’, in-: ‘mi’, na: ‘casa’, b'ay: ‘en’)

b. K'am chi..och.ej *jun.oq a.no7*

(K'am: ‘negativo’, chi: ‘incompleativo’, : ‘3’,  
och-: ‘querer (tr)’, -ej: ‘transitivo formativo’,  
*jun*: ‘un, una’, -oq: ‘partitivo(?)’, *no7*: ‘animal’)  
(Martín: 1978, p. 109)

마야語의 ‘*jun*~numeral + (nombre) + posesivo + N’ 형식에 대해 Martín(1978)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과 의미적으로 강조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土語주의 영향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동시에, 西語의 경우에는 부정관사(un, una)에 의한 강조적 표현인데 비해 마야語는 數詞(*jun*)로서 이루어진다는 기능적인 차이를 들어 16세기 古風주의도 인정한 상호접촉현상으로 판단했다. 관사가 없는 께츄아語의 경우에도 ‘un mi amigo’와 같은 표현을 數詞(*shuc*)를 사용하여 ‘한 나의 친구’의 의미로 ‘*shuc 께*’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土語주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古風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정관사 대신 지시형용사를 사용한 표현 ‘este mi amigo’ 혹은 정관사와 함께 하는 ‘de los sus ojos’ 등의 표현은 께츄아語 문법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다.

Munacniy 'mi amador'

Munacniñiy 'este mi amador'

(Chay) munacniñiy 'aque! mi amador'

(González Holguín: 1607, p. 18.)

Kay wasi-yku-qa mana-n luti hina-chu rkhu-ri-n.

'Esta nuestra casa no aparece como tal lote'

(Calvo Pérez: 1993, p. 116)

이 밖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de los sus ojos'와 같은 표현들도 께츄아 언어권에 있어서는 주격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영향으로 보인다.(Cf. 3.5.1.)

### 3.4. 時制에 의한 土語주의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시제사용의 문제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역시 께츄아언어권 지역에도 과거시제의 혼동, 미래시제를 사용하여 명령형 표현, 현재분사의 이질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 3.4.1. 과거시제의 혼동

스페인語의 과거시제는 부정과거, 완료과거, 불완료과거, 대과거와 직전과거로 나누는데 비해 께츄아語의 과거시제는 rqa(혹은 rca, -rka)와 shqa(혹은 sca, -ska, -shka)인 2가지 형의 과거시제 접사가 있을 뿐이다. 이 과거시제 접사들은 스페인語 시제의 정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rqa: 이 과거시제 접사는 話者가 직접 경험하였거나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사건들을 현재 위치에서 이미 끝나버린 행위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shqa: 이 과거시제 접사는 話者가 사실적이든지 가상적이든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건들을 현재 위치에서 이미 끝나버린 행위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로 인해, 께츄아語 문법학자들은 西語의 시제와 비교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들로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rqa를 西語의 부정과거와 완료과거, -shqa를 대과거 또는 rqa를 부정과거와 불완료과거, -shqa는 부정과거와 완료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께츄아언어권 지역의 西語는 께츄아語의 영향으로 과거시제 혼동현상은 당연한 일이나, 다른 인디언 언어권 지역들도 土語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Hoy llegué(=he llegado) tarde.

(Moreno de Alba: 1993, p. 186)

De los años 30 a 40 gobernaron(=han gobernado) en aquella plaza dos caballeros. (Fontanella de Weinberg: 1992, p. 74)

Este chico ha tenido(=tuvo) un mal sueño anoche (Kany: 1970, p. 201)

Habías estado(=has estado) trabajando fuerte.

(Laprade: 1981, p. 223)

El capitán todavía no se vestía(=no se había vestido) cuando llamé a la puerta de su cabina.(Kany: 1970, p. 194)

Había dejado(=parece que dejó) el paquete en la cocina.

(Mendoza: 1988, p. 107)

이제는 중남미西語 뿐만 아니라 께츄아語의 경우에도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rqa를 西語의 부정과거로 shqa를 완료과거처럼 西語化(castellanización)하여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현상을 볼 수 있다.

### 3.4.2. 미래시제에 의한 명령형

미래시제로서 예의, 겸손 등의 의미로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현상은 주로 에콰도르 西語에서 많이 나타난다.

Entonces preparáste(=prepárate); Acordaráste(=acuérdate) de nosotros

Cuidarás(=Cuida) al guagua! Escribirás(=Escribe) pes;

Tendránle(=Ténganla) bien, a lo mejor me muerde;

No te harás(=No te hagas) el chistosito.  
(Ecuador: Kany: 1970, p. 195)

깨추아어에서 nga는 미래형 접사로서 사용되나, 에콰도르 방언의 깨추아어 경우에는 미래형과 정중한 명령을 표현할 때도 이 접사가 사용된다.

Yayamanmata yuyari-*ngui*.  
Respetará(=Respetar) a tus padres!

Amatac micu-*ngui*.  
No comerás(=No comas)!  
(Ecuador: Catta, 1987, p. 111)

### 3.4.3. 현재분사gerundio의 이질현상

중남미 전역에 걸쳐 西語의 현재분사 이질현상은 심각하다. 때로는 16세기 古風주의 혹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계승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상도 있으나 깨추아언어권의 이중언어사용자들의 현재분사 gerundio 남용은 토착어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Ve pes Parecen pishquitos(=pajaritos) cuando *quidando* muertos *Agarrando* di rama(=cuando quedan muertos agarrados de una rama); Aura cayu ca, pubre, pubre Di dunde para *sacandu*(=¿de dónde he De sacar?); ¿Por qué? Contestó otro. Qui mal *cometiendo*?(=¿qué mal hemos comedido?); Esperarís nu más. Ujalá taita Dios *ayudando*(=Ojalá Padre Dios ayde); ¿Qué *duliendo*?(=¿Qué te duele?); Bueno pes, taiticú. Voy buscar plata. Ujalá tan *econtrando*(=Ojalá la encuentre).

(Toscano Mateus: 1953, p. 272)

깨추아어의 현재분사gerundio 접사 '-shpa'는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접사이다. 이로 인해 깨추아언어권 西語에 영향을 준 현상은: 1)명령형으로 사용되는 'dar + gerundio', 2) 습관적으로 남용하는

‘diciendo’, 3) ‘por qué’ 혹은 ‘con que razón’의 의미로 표현하는 ‘¿Qué diciendo?’, ‘¿Qué haciendo?’, 4) ‘he hecho’ 혹은 ‘acabo de hacer’의 뜻으로 사용되는 ‘venir + gerundio’ 등이다.

Apumu-*shpa* *cuy*.  
‘*da trayendo*(= Trae!).’  
(Vázquez: 1940, p. 127)

Ima ni-*shpa*?  
‘¿Qué diciendo?’  
Ima rura-*shpa*?  
‘¿Qué haciendo?’  
(Toscano Mateus: 1953, p. 274)

Micu-*shpa* shamuni.  
Vengo comiendo(= comí antes de venir).  
(Julio Paris: 1892, p. 36)

### 3.5. 격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껴츄아語에는 일반적으로 6가지 격조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이중언어사용자들의 습관적인 助詞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 1) 주격(Nominativo) : , ca(혹은 qa, -ka)
- 2) 호격(Vocativo): -y, 혹은 -lla(혹은 la)
- 3) 속격(Genitivo): -pac(혹은 pa)
- 4) 대격(Acusativo): -ta
- 5) 여격(Dativo): -ta, 혹은 man
- 6) 탈격(Ablativo). -manta; ‘desde, de’, -man ‘hacia, a, por’, -caman (혹은 -kaman), ‘hasta’, -pi ‘en’, -huan(혹은 wan) ‘con’, -raicu(혹은 rayku) ‘por, a causa de’, -ta ‘por’.

### 3.5.1. 주격(主格)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깨추아語의 주격nominativo조사는(조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ca (혹은 ka, -kaq) 의 2종류가 사용되는데 우리 국어와 비교한다면 -의 경우는 ‘-는/-은’에 해당하는 주격격조사에 가깝고, -ca는 ‘-이/-가’의 의미를 갖는 주격조사에 해당한다. 이미 밝힌바 있지만 대부분의 부족언어들은 관사가 없다. 깨추아語에서도 적용되나 깨추아語 문법학자들인 Paris(1892), Cordero(1895), *múgica*(1974), Ortiz(1974)와 Palomino(1976) 등의 학자들은 의미적 해석으로 주격조사 ca를 西語의 정관사로 대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해석으로 인해 중남미西語에서 발생하는 ‘정관사 + 소유격 인칭형용사 + N’의 현상인 ‘de los sus ojos’, ‘bendito sea el tu reino’등의 표현에 대해 Palomino(1976)는 깨추아語의 조사 ca(혹은 kaq) 영향에 의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Wamlakuna-kaq-ni-n-ta qayakan.  
‘Está llamando a las sus muchacas’

Laapis-kaq-ni-i-ta pristashayki.  
‘Te voy a prestar  
el mi lápiz’  
(Palomino: 1976, p. 143)

### 3.5.2. 호격(呼格)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일반적으로 스페인에서는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는 호격 vocativo형식은 ‘N + 소유격 인칭대명사’ 즉, ‘hijo mío’, ‘Dios mío’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깨추아언어권 지역에서는 ‘hijo mío’표현 대신 ‘mi hijo’, ‘mi mama’, ‘mi guagua’따위의 호격형식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은 16세기 고어체에서부터 현대 스페인語까지 군대용어로 ‘mi capitan’, ‘mi teniente’ 등이 사용된다는 근거로 古風주의라는 학설도 있으나 Cuervo(1935), Zamora(1989) 등은 깨추아語의 영향quechuismo으로 단정한다.

께츄아語의 호격조사는 페루지역에 사용하는 y와 에콰도르 방언의 호격조사인 lla 혹은 la가 있다.

Saykukuni *mama-y*.  
'Estoy rendido, *mi mama*.  
(페루 께츄아語: Calvo, 1993, p. 112)

Manarax *wawa-y*, purinchu.  
'*Todavía no camina, mi hija*'  
(볼리비아 께츄아語: Gómez ñ Arévalo, 1988, p. 109)

*Masha-lla*, canpac jachata mañachihuai.  
'*Mi cuñado, préstame tu hacha*'  
(에콰도르 께츄아語: Catta, p. 206)

### 3.5.3. 속격(屬格)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16세기 스페인語에서도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de + 인칭대명사' 형식은 페루와 볼리비아를 제외한 께츄아언어권 대부분 지역, 칠레의 아라우카노araucano언어권과 그 밖의 다른 언어권 지역인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와 쿠바 등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la casa de él', 'la madre de ella', 'los relojes de nosotros' 등의 표현을 말한다.

께츄아語의 속격genitivo조사에는 pa(혹은 pac) 를 사용하며 西語의 'de'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ñoqa-pa(de mí), ñoqanchis-pa(de nosotros), can-pa(de ti) 등으로 사용 함으로서 께츄아언어권에서는 스페인語의 'mi casa', 'su madre' 'nuestros relojes' 등의 표현방식보다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런 형태적 현상으로 인하여 'la casa de yo', 'la madre de tú' 등의 독특한 표현도 발견된다. 특히, 이런 'de + 인칭대명사' 형식은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보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등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로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께츄아語는 속격조사 pa와 함께 y, -n등의 인칭 소유격 접사가 동반되는데 속격조사 -pa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음의 예문처럼; ‘wasi-y(mi casa)’, ‘wasi-n(su casa)’ 소유격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속격조사 pa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중소유격현상’을 유발 시킨다.

ñoqa-pa wasi-y  
‘mi casa de mí’

runa-pa chakra-n  
‘su chacra del hombre’  
(Ayacucho-Chanca지역 방언: Soto Ruiz, 1976, p. 77)

Juan-pa wallpa-n  
‘su gallina de Juan’  
(San Matín지역 방언: Coombs, 1976, p. 92)

이런 ‘이중소유격현상’은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인 켄추아언어권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남미西語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De mí mi papa es carnicero.* (Miranda Esquerre: 1975, p. 479)  
*Murió su primo de mi mamá.* (Luján, Minaya ñ Sankoff: 1981, p. 98)  
*Esta es su tienda de mi compadre.* (Escobar: 1978, p. 108)  
*Era su amiga de Juan.*(Lozano: 1975, p. 304)

칠레의 아라우카노araucano語 지역인 치올레Chiolé에서도 이런 ‘이중소유격현상’ ‘Este es *mi* sombre yo’, ‘sta es tu camisa tú’, ‘Ese es su caballo él’, ‘ste es su libro(d)el maestro’ 등의 표현이 아라우카노語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iñche ñi kawello  
‘mi cabello yo’

eymi ta·mi kawello  
'tu caballo tú'

fey ñi kawello  
'su caballo(de) él'

(아라우까노語: Salas, 1992, p. 101)

치올레Chiolé 아라우까노語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된 'su caballo'él'와 같은 표현에 관하여 Cavada(1914)는 원래 'su caballo(d)e él'의 표현이 모음사이에 있는 /d/가 쇠퇴하여 생긴 'su caballo(d)e él' > su caballo él'의 변천과정을 설명한다.

이 밖에도 께츄아語의 인칭 소유격 접사 '-y', '-n', 등에 의한 현상으로 'mi delante(=delante de mí)', 'mi cerca,(=cerca de ti)', 'su detrás,(=detrás de él)' 등의 장소副詞와 함께 쓰이는 표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질현상에 관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설들이 발표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비슷한 표현인 'delante suyo', 'delante mía'등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안달루시즘의 학설과 16세기 스페인語에서는 'de'가 생략된 'delante mí'와 같은 표현이 쓰였다는 古風주의, 심지어는 까딸루냐 지방의 까딸랑語의 영향이라는 학설도 있다.

껴츄아語에서는 西語의 장소副詞에 해당하는 'delante, dentro, adentro, detrás, atrás, encima, cerca' 등을 名詞로 취급하므로 인칭 소유격 접사 '-y', '-n',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께츄아어어권 전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전치사 'en'(-pi) 혹은 'por'(-ta, -man) 등을 동반하여 사용하는 'en mi delante', 'por su delante' 등의 표현들도 자주 사용된다.

Chay qaylla-y-pi michi kaniwarqan.

'Me ha mordido ese gato que está *en mi delante*'  
(Calvo Pérez: 1993, p. 58)

Wasi *wasa-n-ta* jamuni.  
'Vine *por su detrás* la casa'  
(Coombs: 1976, p. 30)

### 3.5.4. 대격(對格)조사와 여격(與格)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깨추어語의 대격acusativo조사는 모든 지역에서 *ta*를 사용한다. 여격 dativo조사도 에콰도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격조사와 같은 *ta*가 쓰여지는데, 에콰도르 깨추어語의 경우에는 여격조사로 *man*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깨추어언어권 지역의 西語에 있어서 목적격, 여격대명사 (*lo, le, la*)의 사용에 영향을 준 'loísmo', 'leísmo', 'laísmo' 등의 현상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중인칭대명사'의 현상과 함께 성과 수의 일치를 무시한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1) 동사의 語頭와 語尾에 이중인칭대명사(*me, te, lo, la*)의 사용현상

*Lastimosamente, no la he podido conocerla*  
*Te estoy habl'andote yo de ac'a*  
*y la pregunta lo que lo he hecho es*  
(Stratford, 1989: p. 120)

#### 2) 목적격 인칭대명사(*lo, la, le*)의 남용현상

*¿Loha visto a Lucas?*  
*Santos la miró a Rosa.*  
*No le veo el carro.*  
(Lipski, 1994: p. 269)

#### 3) 목적격 인칭대명사 'lo'의 성과 수의 불일치 현상

*Lo quiere mucho a su hijita.*  
*Lo baña a la chiquita todos los días.*

*¿Me lo va a firmar la libertad?*

(Rojas, 1980: p, 83)

4) 複數形 목적어에 여격 인칭대명사 'le'의 사용현상

Pues es porque *le* obedecen a las mujeres.

*Le* cambiaba el alpiste a los canarios.

A la última hora *le* quitan a los enfermos las camas.

(Kany, 1970: p. 140)

께츄아語에서는 대격, 여격조사 ta 외에도 동사에 접목하여 사용하는 목적격 접사 '-wa', '-yki', '-su', '-n', 'ni' 등을 동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격 접사들은 대격조사 ta가 없어도 암시적으로 목적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중속격현상'과 같은 '이중목적격현상'이라 볼 수 있다.

Kawa-ni.

'(lo) veo'

(Coombs Weber, 1976: p. 108)

yayanc-ta ricu-ni.

'(lo) veo al Señor'

(Santo tomás, 1560: p. 25)

Pay ñuca-ta maqa-wa-n.

'/ Ella me pega me'

(Palomino, 1987: p. 275)

께츄아語의 경우처럼 멕시코의 나우아틀nahuatl語 계열인 나우아 nahua語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발견되는데, 께츄아語와는 달리 특별한 목적격 접사가 따로 없으나 動詞 자체에서 암시적으로 목적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o- ni- coch  
 'Yo(lo) dormí'

o- ti- nen  
 'Tú(lo) viviste'

Tle ti- qui- tta  
 ' Qué(lo) ves ?'

(Lipski, 1994: p. 105)

즉, 위 예문과 같이 'o-'와 'qui-'는 동사의 時制접사인데 동시에 목적격 접사의 기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우아틀語도 께츄아語의 경우처럼 '이중목적격' 현상을 일으킨다.

<나우아틀語 경우>

Ni- qui-tta in cihuah.  
 'Yo lo veo a la mujer'  
 (Lipski, 1994: p. 104)

<께츄아語 경우>

Sacha-ta ricu-ni.  
 'Yo lo veo el árbol'  
 (Soto Ruiz, 1976: p. 49)

이 밖에도 께츄아語에 있어서 목적격 인칭대명사 접사의 3인칭형은 단수형만 존재하므로 혼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께츄아언어권 西語에 있어서 복수형 목적어에 여격 인칭대명사 단수형 'le'가 사용되는 현상(¿Por qué no le pegará a sus hijas?)을 그 예로 들 수 있다.(Cf. Tae Yoon Lee, 1997).

### 3.5.5. 탈격(奪格)조사에 의한 土語주의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언어현상의 하나인 전치사의 생략,

남용, 혼동 들이 있다. 그 중 혼동현상에 있어서 전치사 ‘a’를 ‘en’, ‘con’으로, ‘en’을 ‘a’로, ‘de’를 ‘a’로, ‘por’를 ‘a’로 등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께츄아語에서는 관사와 함께 전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께츄아語의 탈격ablativo조사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진 西語의 전치사에 해당하나 기능적인 이질성에 의해 발생하는 혼동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Mama-*ta* quqarparin.  
 ‘Se olvidó *a*(= de) su mama’  
 (Gómez ñ Arévalo, 1988: p. 80)

an-*ta* callaparca.  
 ‘Corrió *al*(= por) el camino’

uca alliladu-*pi* tiyari.  
 ‘Siéntate *en*(= a) mi derecha’

Cai llama-*ta* ishcai huaranga-*pi* randircani.  
 ‘Compré este borrego *en*(= por) dos mil’

Chaquilla-*huan* rishpa.  
 ‘Yéndose *con*(= a) pie’  
 (Catta, 1987: pp. 34-40)

## 맺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는 언어들의 상호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통사적인 현상들을 土語주의indigenismo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예로 중남미西語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질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언어학적 연구 소재는 다양하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미 중남미에서의 西語는 점점 다른 형태의 언어구조로 바뀌었거나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16세기 古風주의arcaísmo, 라틴어주의latinismo, 안달루시즘andalucismo 등의 학설로만 해석하기에는 로망스언어 중심의 경향이 짙으므로 로망스언어권에 속하는 서구학자들의 학설로서 그들의 라틴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내적요소의 영향 외에도 중남미 西語의 이질현상에 대한 외적요소들을 들여보자면 afronegrismo, galicismo, anglicismo, neologismo, judaísmo, arabismo, marinerismo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중남미 西語를 정복자들은 하나의 방언으로서 'Español de América'이지만 토착어들과 함께 공존하는 중남미에서의 西語는 'Español en América'<sup>13)</sup>로 주장하는 이유 또한 다른 西語의 면모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일면 부족언어들에 의한 영향인 土語주의indigenismo도 주요 내적요소에 해당한다.

중남미 西語와 마찬가지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주요 부족언어들인 Nahuatl어, Maya어, Quechua어, Guaraní어 등의 경우에도 이제는 대다수가 이중언어사용자로 융화되었으며 극히 소수의 단일언어사용자만이 현존할 뿐이다. 이들 이중언어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토착어 역시 혼합현상에 의해 西語化castellanización된 토착어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들은 파라과이의 요빠라yopará 경우처럼 새로운 언어형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계추아語의 경우에도 혼합현상에 의하여 많이 西語化되었으나 다른 부족언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제일 많은 언어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언어학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언어비교에 있어서 계추아語는 우리 국어와 같은 유사성이 많아 분석하기에 로망스언어권의 서구학자들 보다는 더 동질언어로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계추아語는 형태적으로 조사와 접사 등을 사용하는 교착어로서 西語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명사의 성이 존재하지 않아 계급언어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언

13) P. U. González de la Calle, "Orientaciones doctrinales para la investigación lingüística y filológica del castellano en América", en *UNC*, I. 1944, Bogotá, p. 42 y 59.

어학적 현상 인 ‘presidenta’, ‘huésped’ 등이 있다.

2) 관사의 경우에도 관사가 존재하지 않아 그 기능을 다른 요소로 대치하려는 ‘un mi amigo’, ‘de los sus ojos’ 등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3) 시제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성질의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거시제 혼동 현상인 ‘Hoy llegué(= he llegado) tarde’ 등의 경우와 미래형을 사용해서 명령형 표현으로 사용하는 ‘Cuidarás(= Cuida) al guagua!?’ 등의 사용, 현재분사의 오용으로 ‘Vengo comiendo(= Comí antes de venir)’ 등이 있다.

4) 격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먼저 주격조사의 경우에 주격조사를 정관사의 기능로 대치하는 ‘bendito sea el tu reino’ 등의 예가 있고, 호격조사의 습관적 사용으로 나타나는 ‘Todavía no camina, mi hija(= hija mía)’ 등과, 속격조사의 경우에는 ‘이중속격’ 현상으로 발생하는 ‘Murió su primo de mi mamá’ 등이 있으며, 대격과 여격조사에 의한 여러가지 현상중 성과 수의 불일치와 ‘이중목적격’ 현상들이 대표적인 예로 ‘Lo quiere mucho a su hijita’ 등의 표현이 있으며, 탈격조사의 경우에는 전치사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서로 다른 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남용, 생략, 혼동 등의 현상들이 발생되고 그 예로 ‘Siéntate en(= a) mi derecha’ 등의 표현들이 발견된다.

이밖에도 서로 다른 언어들의 상호접촉 현상들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은 많이 있으나 우리는 본고에 발표된 소수의 이질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명사의 성과 관사의 경우처럼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치작용과, 둘째로 서로 다른 시제의 사용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격조사의 사용으로 결합된 요소를 합리화하려는 보완작용 등으로 함축해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요지는 西語와 께츄아語의 언어상호접촉으로 일어나는 중남미西語에 있어서 土語주의 영향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다수가 사용하는 영어, 불어 등의 로망스계열 언어들도 서로 다른 문화권의 언어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형태통사적 공통된 오류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제시해 본다.

## 참고문헌

- LVAR, Manuel, *El español de las dos orillas*, Madrid, Mapfre, 1993.
- ALONSO, Amado, *Estudios lingüísticos, Tema Hispano-americanos*, Madrid, 1967.
- CALVO PREZ, Julio, *Pragmática y gramática del quechua cuzqueño*, Lima, Centro de Estudios Regionales Andinos, 1993.
- CARAVEDO, Rocío, “Espacio geográfico y modalidades en el español del Perú”, *Historia y presente del español de América*, C. Henrnández(d.), Valladolid: Junta de Castilla y León, 1992, pp. 719-742.
- CATALN, Diego, “Génesis del español atlántico. Ondas varias a través del Océano”, *revista de Historia Canaria*, 24, 1958, pp. 1-10.
- CATTA, P. Javier, *Gramática del quichua ecuatoriano*, Quito, Abya-Yala, 1987.
- CAVADA, Francisco, *Chiolé y los chilotes*, Santiago, Imprenta Universitaria, 1914.
- CERRN-PALOMINO, Rodolfo, *Gramática quechua: Junín-Huanca*,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 \_\_\_\_\_, *Lingüística quechua*, Lima, Centro de Estudios Rurales Andinos, 1987.
- COOMS, David, COOMBS, Heidi y WEBER, Robert, *Gramática quechua San Martín*,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 CORDRO, Luis, *Diccionario Quichua-Castellano y Castellano-Quichua*, 1895, Quito, Proyecto Educación Bilingües Interculturales, 1992.
- CUERVO, Rofino José, *Apuntaciones críticas sobre el lenguaje bogotano*, Chartres, 1935.
- CUSIHUAMAN, Antonio, *Gramática quechua: Cuzco-Collao*,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1976.
- ESCOBAR, Alberto, *El reto de multilingüismo en el Perú*,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2.
- FONTANELLA DE WEINGBERG, María Beatriz,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Mapfre, 1995.
- GMEZ BACARREZA, Donato, y ARVALO SOTO, Fabiana, *Morfología del idioma quechua*, La Paz, Ichthus, 1988.
- GONZLEZ de la CALLE, P. U., "Orientaciones doctrinales para la investigación lingüística y filológica del castellano en América",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1, 1944, pp. 25-79.
- GONZLEZ HOLGUN, Diego, *Gramática y Arte lengua general de todo el Peru, llamada lengua Qquichua, o la lengua del Inca*, Lima, 1607.
- \_\_\_\_\_, *Vocabulario de la lengua general de todo el peru llamada lengua Qquichua, o del Inca*, Lima, 1608.
- GRANDA, Germán de, "El español del Paraguay. Distribución, uso y estructuras", *Historia y presente del español de América*, Valladolid: Junta de Castilla y León, 1992, pp. 675-695.
- HENRQUEZ UREA, Pedro, "Observac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Revista de Filología Española*, VII, 1921,

- pp. 357-390.
- KANY, Charles E., *Sintaxis hispanoamericana*, Madrid, Gredos, 1994.
- KAUFMAN, Terrence, *Proyecto de alfabetos y ortografías para escribir las lenguas mayances*, Guatemala, Ministerio de Educación, 1986.
- LAPESA, Rafael,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1980.
- LAPRADE, Richard, "Some cases of Aymara influence on La Paz Spanish. The Aymara language in its social and cultural context", en *Hardman M. J.* ed.) 1981, pp. 207-227.
- LEE, Tae Yoon, *Morfosintaxis amerindias en el español americano. Desde la perspectiva del quechua*. Ediciones Clásicas-Ediciones del Orto,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1997.
- LENZ, Rodolfo, "Beitæ zur Kenntniss des Amerikano-spanischen",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17, 1893.
- LIGORRED, Francesc, *Lenguas indígenas de México y Centroamérica*, Madrid, 1992.
- LIPSKI, Jhon M,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Cátedra, 1996.
- LUJN, Marta, MINAYA, Liliana, y SANKORR, David, "El principio de consistencia universal en el habla de los niños bilingües peruanos", *Lexis*. Vol. V, Núm. 2, Lima, 1981. pp. 95-110.
- LOZANO, Anthony G., "Syntactic borrowing in Spanish from

- Quechua: The noun phrase”, *Lingüística e indigenismo moderno de América*,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5, pp. 297-305.
- MARTN, Laura, “Mayan influence in Guatemalan spanish: a research outline and test case”, *Papers in Mayan Linguistic*, Columbia, Universidad de Missouri, 1978, pp. 106-126.
- MENDOZA, José G., *Caracterización morfosintáctica del castellano paceño*. La Paz, Manuscrito inédito, 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1988.
- MENNDEZ PIDAL, Ramón, “Sevilla frente a Madrid. Algunas precis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en *Miscelánea homenaje a André Martinet, La Laguna*, 3, Universidad de la Laguna, 1962, pp. 99-165.
- MIRANDA ESQUERRE, Luis, “Peculiaridades sintácticas en el español de los niños ayacuchano”, *Lingüística y Educación: Actas del IV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LFAL*, Lim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1975, pp. 465-477.
- MORENO DE ALBA, José G., *El español en América*, México, Lenguas y Estudios Literarios, 1993.
- MGICA, Camilo, *Aprende el quichua*, Quito, CICAME, 1974.
- ORTIZ, Bernarda, *Apuntes de gramática de la lengua quichua*, Latacunga, Departamento de Indigenismo de la Conferencia Episcopal Ecuatoriana, 1974.
- PARIS, Julio, *Gramática de la lengua quichua actualmente en uso entre los indígenas del Ecuador*, Quito, 1892.
- PARKER, Gary, “Palacias y verdades acerca del quechua”, *El*

- reto multilingüismo en el Perú*,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2, pp. 111-121.
- RESNICK, Melvyn, *Phonological variants and dialect identification in Latin American Spanish*, La Haya, Mouton, 1975.
- ROJAS, Elena M., *Aspectos del habla en San Miguel de Tucumán*, Tucumán,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1980.
- RONA, José Pedro, "El problema de la división del español americano en zonas dialectales",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1, Madrid, 1964, pp. 215-226.
- ROSENBLAT, ngel, "La hispanización de América. El castellano y las lenguas indígenas desde 1492",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II, 1964, pp. 189-216.
- SALAS, Adalberto, *El mapucho o Araucano*, Madrid, Mapfre, 1992.
- SANTO TOMS, Domingo, *Grammatica o Arte de la lengua generales de los Indios de los Reynos del Peru*, 1560.
- SOTO RUIZ, Clodoaldo, *Gramática quechua: Ayacucho-Chanca*,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1976.
- STRATFORD, Billie Dale, *Structure and use of Altiplano Spanish*, Ph. D. disertación, University of Florida, 1989.
- TORERO, Alfredo, "Lingüística e historia de la sociedad andina", *Lingüística e indigenismo moderno de América*. Vol. 5.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5, pp. 221-259.

TOSCANO MATEUS, Humberto, *El español en el Ecuador*,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1953.

VZQUEZ, Hornato, *Reparos sobre nuestro lenguaje usual*, Quito, 1940.

WAGNER, Max Leopold, "Amerikanospanisch und Vulgärlatein",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40, pp. 286-312, 385-404.

ZAMORA VICENTE, Alonso, *Dialectología española*, Madrid, 1989.

ZAMORA J. y J. GUITART, *Dialectología hispanoamericana*, Salamanca. Almar. 1982.

**【Resumen】****Indigenismo en el español americano**

— Desde la perspectiva del quechua —

Tae-Yoon Lee

En este estudio que se desarrolla las páginas anteriores, se han tratado los fenómenos morfosintácticos anómalos que se originan fruto del contacto de diferentes culturas.

Desde la implantación del español como lengua en América, ha sido sentido por parte de los filólogos el deseo de dar cuenta de la variedad lingüística americana y de sus relaciones con los idiomas indígenas presentes en la geografía del continente antes de la llegada de los españoles a esas tierras. La importancia que en el desarrollo histórico han desempeñado las lenguas amerindias -entendidas como lenguas de sustrato- ha sido señalado desde antiguo por eminentes especialistas en la materia. Ya en 1893, el investigador Rodolfo Lenz, advirtió que el español que se habla en Chile está contaminado con sonidos araucanos. Incluso la primera clasificación dialectal del español americano propuesta por Pedro Henríquez Ureña en 1921- se basaba en la distribución geográfica de las principales lenguas indígenas.

A pesar de que la teoría indigenista sobre el origen del español de América contó con contribuciones trascendentales durante la primera mitad de siglo, hay que advertir que en sus plantamientos se observa una laguna importante: la falta de atención en líneas generales- a criterios morfosintácticos para explicar la génesis y

posterior desarrollo de la variedad lingüística hablada en Hispanoamérica.

No obstante queremos advertir algo que no por muy conocido deja de ser una realidad de gran peso en los trabajos que se han llevado a cabo desde la perspectiva hitórica sobre el español de estas tierras, y es que la mayor parte de los estudios que se refieren tanto a la determinación de las áreas dialectales como a los elementos que han influido en la gestación de la variedad española de América, han tomado como base de su investigación factores fonéticos o léxicos, dejando desatendidos en cierto modo- los factores morfológicos y sintácticos que han podido influir, junto con aquellos, en la formación de las variedades americanas conocidas en la actualidad, por lo menos en lo que se refiere a fenómenos gramaticales procedentes de las lenguas indígenas.

Nadie puede negar que la fonética andaluza del Siglo de Oro es la que se extendió por todo el continente y la que con su evolución propia, geográfica e históricamente, se ha perpetuado en aquel territorio. Incluso la mayor parte de las construcciones gramaticales que se dan en el español de América tienen un parangón en las construcciones de Península. Pero tampoco puede negarse que cuando una lengua entra en contacto con otras por muy distintas que éstas sean- se produce una simbiosis que da como resultado el préstamo de ciertos fenómenos gramaticales.

La lengua base en la que vamos a apoyar nuestra investigación es el quechua, aunque lo haremos extensible a otras tan importantes como el nahuatl, maya, guaraní y araucano. El bilingüismo, por naturaleza, resulta del contacto entre lenguas con distinta fuerza social, tal es el caso de las relaciones entre el

quechua y el español. Por un lado se manifiesta el prestigio y el valor pragmático del español y, por otro, la importancia del quechua a pesar de la nueva actitud de revalorización de las comunidades lingüísticas del país y de cierta fidelidad observada en algunos sectores quechua-hablantes. Tampoco queremos dejar pasar por alto el fenómeno de la paulatina desaparición de las lenguas indígenas como factor promovido por el prestigio del español. Las lenguas indígenas pierden terreno, poco a poco, debido al abandono de las costumbres y la imitación de los modos de vida del hombre blanco.

Este trabajo es un extracto del libro que he publicado en l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bajo el título '*Morfosintaxis amerindias en el español americano. Desde la perspectiva del quechua*, Ediciones Clásicas-Ediciones de Orto, Madrid, 1997', cuyo motivación principal partió del contacto directo con hablantes indígenas, particularmente quechuas, durante largos períodos de residencia en los países andinos. La observación de los giros sintácticos y de las construcciones morfológicas presentes en el nivel oral de estos hablantes fue el hecho que propulsó nuestro interés por el grado de influencia en la morfosintaxis española.

Nuestro trabajo se articula en tres capítulos principales. El primero de ellos, como la introducción, se ha tratado de las cuestiones generales sobre la situación actual en el español americano, explicando la clase de las lenguas amerindias y las bibliografías principales de las lenguas amerindias en los siglos XVI y XVII. El segundo capítulo está dedicado a cuestiones generales sobre la lengua quechua: la distribución de las

lenguas indígenas andinas con sus estadísticas del número de quechua-hablantes, y sus variedades dialectales(en Perú, Bolivia, Ecuador, Argentina y Colombia principalmente). El tercer capítulo aborda las cuestiones principales de la influencia morfosintáctica de la lengua quechua en el eapañol de América y se estructura siguientes temas de estudio: Primer apartado se trata del problema en el uso de las discordancias de género. Un segundo apartado hace referencia a la discortancias de artículo sobre el adjetivo posesivo acompañado de artículo o demostrativo, El tercer apartado se concreta en el estudio del concepto temporal, incluyendo la confusión que aparece en los tiempos pretéritos. En este sentido podemos afirmar que la lengua dominadora, a la vez que ha sido contaminada por la dominada, ha contaminado a la que sirve de sustrato. Por último nos hemos centrado en la influencia morfosintáctica de los sufijos del quechua; nominativo, vocativo, dativo, genitivo y ablativo.

Evidentemente esta influencia se puede ampliar a numerosos fenómenos además del que aquí se desarrollan, pero esperamos que esta contribución pueda servir de base para futuros trabajos en los que se estudien de forma particular estos problemas.